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shington 98124

Ke-Hi Oh - Publisher
Sung-Hwi Pak - Editor
(206) 362-4500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9·10





영미정

한국 최고의 궁중요리사
드디어 영미정 주방에
초빙되었음.

대표 조 영

84년1월1일부터

일본식 요리 개시

(씨애틀 최대 규모와 격조높은 나이트 클럽)

★로스엔젤레스에서 대인기를 모은

대형가수 문희진양 출연★

※ 가족외식 ※ 친목회식 ※ 귀한손님집대 ※ 축하연동

모임에 따라

10명에서 150명 400명 까지

한자리에 모실수 있습니다

YOUNG ME RESTAURANT
623-3112

220 4th Ave So Seattle, WA 98104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 최신식 완전 자동냉면기계 설비

○ 대 연회장 완비

○ 넓은 주차장 시설



한인회보

목차 (CONTENTS)

- 4) 「 아리랑의 밤 」
- 5) 나의 회장 회고록 제 4, 5대 한인회장 이현기
- 7) 나와 씨애틀 한인회 제 6대 한인회장 구범희
- 10) 비 온뒤 굳어지는 땅
- 12) 어린이 유괴 방지에 대한 부모의 책임
- 13) 자녀와 함께 읽는 시간
- 14) 「 교포사회 소식 및 동정 」
- 16) 84년도 한인회비 내신 분들
찬조금 기부자 명단
한인회보 광고료 내신 업체 및 개인
- 17) 1984년 및 분기 재무 보고서
- 19) 두 백
- 26) Youth Column 「 Purpose 」
- 28) Something New is Happening in
Washingtons Korean American Community

◎ 순 한국식 중화요리

四川飯店

■ 일류 요리사의 순 한국식 진미 요리로써
성실껏 한인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 짜장면, 짬뽕, 군만두, 양장피잡채,
팔보채, 황수육, 라조기, 해삼탕, 불고기
기타 각종요리

■ Lunch Special \$3.25

■ 김치 무료제공

영업시간

화~목 11:30~10:30

금~일 12:00~11:00

● 월요일은 쉽니다.

★ TO-GO도 합니다.

14814 15th Ave NE SEATTLE

전화 365-9174



황수철 부동산

NORTHEND 및 BELLEVUE 지역

522 - 7566

정문언보험

FARMERS INSURANCE

9525 AURORA AVE. N.

SEATTLE, WA 98103

(206) 523-9111 • (206) 588-0611

“아리랑의 밤”

교포 여러분 가정마다 만복 갖드시기 축원드립니다. 이 해도 곧 저물어 갑니다. 우리 교포 여러분들의 망년회와 크리스마스 파티를 겸한 전통적인 “아리랑의 밤”을 아래와 같이 개최키로 하였으니 바쁘신 가운데서나마 부디 많이 오셔서 송구영신의 회포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1984년 12월 15일 (토) 저녁 7시 30분

○장소—워싱턴주립대학 허브-홀
(HUB-HALL, UW)

○파티 내용 : 간략한 식, 경품추첨, 밴드 연주 및 노래, 댄스 파티.

※비고 1) 밥찰, 음료, 주류 제공

○회비—1인당 \$10.00(부부 \$20.00) 당일 현장에서 입장권 구입시는 1인당 \$12(부부 \$2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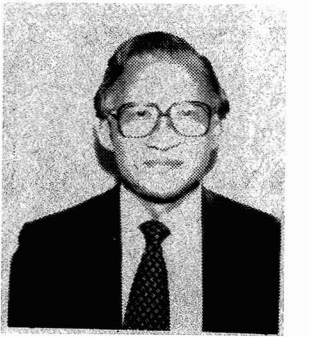
입장권은 1) 한인회 임원에게 문의하거나
2) 월-금 사이 2 P.M. - 6 P.M. 사이에 362-4500
한인회 사무실에 문의 하십시오.

씨애틀-워싱턴주 한인회

역대한인회장 회고

나의 회장직 회고록

제 4, 5대 씨애틀한인회장 이 현 기



17년전인 1967년에 미주 서북지역에 한인교포 단체로서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첫 단체인 "씨애틀한인회"가 창립되었다. 서두수 박사, 최예순 선생님을 비롯하여 전임 3대 회장님들의 노력으로 교포들의 친목과 복지 향상은 잘 이루어져왔다. 1972년 초에는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로 개칭하여 비영리단체로 주정부에 등록을 해야만 되는 형편에 당면했었다. 선배님들과 상의하여 승락을 받고 영어로 현장을 작성하여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했다.

1955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처음으로 신세를 진 분들이 두분 계신다. 이창희 선생 내외분과 서두수 박사 내외분이시다. 한인회가 결성되기 전해인 1966년부터 미국으로오는 동양계 이민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케네디 대통령의 제안인 "동양계 이민수 제한 폐지 법안"이 통과된 혜택이다. 본인도 미국에 온 지 11년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다. 교포수는 날이갈수록 증가되어 1972년에는 씨애틀과 라코마 지역에 약 25,000명에 달한다고 추산되었고 정확한 인구수는 파악할 수 없었다.

인생 행로에서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을 영구히 기억못하며 쓰라린 고생을 한 경험은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 동시에 자기가 경험한 고생을 후세가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학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생각되나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직장 구하기가 곤란하고 노동의 대가가 싸서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새로 도착하는 이민교포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한인회의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본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 새로 도착한 교포들의 도움이 필요한 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으나, 선결 문제는 영어 문제이고 둘째 문제는 직장이었다. 언어가 불통한 관계로 국제결혼하신 분들의 가정 불화도 많이 있었던것도 사실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현재 워싱턴 대학 신문실장인 "후레드 코도바"를 만나게 되었다. 그 분 말에 의하면 그 당시 필리핀 교포들은 "필리핀 청년회"를 조직하여 주정부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아서 청년운동을 한다는 말이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것으로 시작되어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필리핀 교포들은 회합을 여러번 가진 후 "대 씨애틀 미국 아시아인 위원회" (Greater Seattle Asian-American Council)를 조직 결성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의 주 목적은 씨애틀시로 부터 재정 원조를 받아서 아세아 이민들의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 결과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씨애틀 시청으로부터 씨애틀 학구들 통해 약 5만불을 한국, 일본, 중국 및 필리핀 이민 영어 교육을 하기 위하여 부여받았다. 대상자는 성인과 아동을 포함했다. 처음 한국인 영어 교사로서 수고하신분 들은 김실동, 유제근, 그리고 최익환씨였고 그 당시 미국 중학교 교사인 김석민씨도 교재 준비하는데에 애를 많이 쓴 분 이다. 첫번 결과가 좋은 관계로 다음해에도 계속되었으며 학생들에게 교재비까지 지불했고 장소는 개인건물을 이용하여 과 국가, 민족별로 편리한 장소를 사용했다. 정부로부터 이민을 위한 영어 (English As Second Language or E.S.L.)교육비가 증가되면서 성인들을 위한 자금이 주정부를 통하여 주어졌다. 그 목적은 이민으로서 기술은 있으나 영어때문에 취직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22주 동안 영어교육을 시키며, 1주일예 약 \$100 이상을 지불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인 교사로써 그때부터 최익환 박사가 씨애틀 쉐츄럴 커뮤니티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 동양인 사회에 40석을 주었으며 그 수를 더 받으려고 관계 당사자들과 싸움도 많이 했다. 재미있는것은 싸우면 꼭 승리했으며 해당자가 많았을때에는 60석까지 받았다. 한국인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본 수는 약 1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남가주에서 긴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멕시코" 사람들은 벌써부터 쌍어교육을 시작했으며 이중

무화도 주장하고 있었다.

1973년 4월 "샌디에고"시에서 개최되었던 쌍어교육 대회에도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타민족들은 자기의 언어를 살리면서 영어도 배우는 즉 "쌍어교육"과 "쌍문화"에 힘을 다하며 자랑스럽게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왔다. 1년이 지난 1974년에는 미국 대법원 판정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이민 아동교육에 쌍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시애틀 학구도 그 판결을 따르게 되었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쌍어교육 선생님이로 취직을 했고, 현재 오 계희 한인회장과 백광호씨 부인이 계속 한국인 학생 쌍어 교육에 실무하고 계신다. 본인은 아세아인 위원회에 관여했던 관계로 시애틀 학구 쌍어 교육 고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되어있으며 쌍어 교육은 지금도 실시중에 있다.

한인회장을 하면서 가장 접촉이 많았던 것은 동양계 사람들이었다. 일본, 중국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벌써부터 단체를 많이 조직하여 주정부 또는 개인 단체로부터 재정원조를 받고 있었다. 1970년 미주 전지역의 불경기로 일본사람들과 중국사람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무보수로 실직자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기 시작하였다. 그 단체의 이름은 E.O.C. (Employment Opportunities Center)로 일명 "동양인 직업 알선소"이다. 1971년 본인은 한인회를 대표하여 그 단체의 이사 한 사람으로 일 하였다. 그 후 안병영씨도 우리 교포 사회의 대표로 선출되었고 현재도 우리 두 사람은 이사로 있으며 우리 교포들의 이익은 물론이고 나아가 다른 동양계 사람들의 이익도 도와 지외 향상에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E.O.C.의 연간 예산은 백 오십만불에 달하며 직원은 40명에 이른다. 한국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김홍기씨가 부지배인으로서 한국인을 대표하여 일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 동양계를 대표하여 비영리 단체로서 신용과 공인을 받으며 성공한 단체로서 서북지역에서 유일한 단체인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많은 사실을 교포들과 후세들에게 말하고 싶으나 지면상 줄이고 한 두가지만 더 첨가하고자 한다. 1972년에 한인회관 건축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 목적은 한인회관을 건립하는 데 있다. 초대 위원으로는 김현중, 신호범, 조 영, 황수철 그리고 김길량씨 등이었고 김현중씨가 위원장으로 일했다. 모금운동으로 여러가지 활동한 결과 약 만여불의 건축금이 모금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그 금액은 건축기금으로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목적이 달성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1971년 회장단으로서 수고하신분 들은 김덕황, 한만섭, 고성환 그리고 안병영씨 등 이고 1972년도 회장단으로 수고하신 분 들은 조영춘, 조 영, 황수철씨 들이었다.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한국인-미국인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이웃 미국인들과 사이 좋게 살며 한국민족으로서 칭찬 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미국내에서 정치에 참여하여 선거때 투표하고 개인 개인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우리의 후세가 더 잘 할수 있으며 그들이 설 수 있는 토대를 준비하는데 희생이 있어야만 되겠읍니다.

역대한인회장 회고

나와 시애틀 한인회

제6대 시애틀한인회장 구 범 희



사진은 1974년 회장시절의 필자

내가 시애틀 한인사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65년 9월 워싱턴대학 기숙사에 도착했을때 당시 학생회장 이었던 박유호씨가 와서 내가 도미시에 지니고 온 태극기를 빌려달라고 만났을 때부터였으니 벌써 20년째로 접어든다. (이 태극기가 지금까지 U.W 학생회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서 영구보관되었으면 싶다) 그 때는 광복절 기념 PICNIC 에서 학생들이 선출한 U.W학생회장이 곧 워싱턴주 한인학생회장이요 또 SEATTLE AREA KOREAN COMMUNITY 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ARIRANG NIGHT, 각종 국경일 기념행사, Seattle 을 지나가는 본국 정부 고위자, 교수등 여행자 접대 등등 모든일을 혼자서 희생적인 봉사일을 해왔었다. 박회장의 요청으로 그해 Arirang Night 준비를 도와주면서 그 분이 하는 일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고민회에서 해야할 일을 자기가 도 말아서 한다고 선배지만 나무라기까지 해봤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1966년 학생회장 선거는 UW 에서 개천절 기념식과 함께 하기로 했는데 입후보자 Y씨가 K목사에게 후원을 요청 목사는 자기교회 교인들을 동원하여 학생회장 선거에 참여하려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학생과 일부교포들은 합세하여 씨를 밀어서 회장에 당선시켰는데 교포들이 투표까지 했으니 Y씨야말로 시애틀 교민을 대표하는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학생회장 선거가 몇몇 교포들의 조그만 반목을 표면화 시켜 끝내는 교포사회의 분열을 초래했고, 교포수가 상당수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한인회를 조직하지 않고 학생회에 덮혀 지내다고 학생들이 비난하는가 하면 학생회장은 학생을 위한 일은 없고 교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고민회장 행세를 좋아서 즐긴다고 비난을 받아 왔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그 다음해 1967년 학생회장 선거에는 입후보자가 없었고 후계자를 모색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었던 학생회장과 몇몇 주요 멤버들은 나에게 회장직을 맡도록 강요 하다가서 피 하여 결국은 조건부로 이를 수락하였다. 그 조건이란 한인회가 독립하여 학생회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데 모두가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었다.

10월에 학생회장을 맡고보니 첫째 해야할 일이 ARIRANG NIGHT 준비였다. 미국생활에 아직 어두었던 일개 유학생으로서 몇명이 올지도 모르는 댄스 파티를 단독 주최한다니 여간 벅찬 일이 아니었다. 날자와 장소 (당시 MEANY HOTEL 현 UNIVERSITY TOWER HOTEL BALL ROOM)를 결정하고 ANDERSON BAND 를 고용 계약한 후 청첩장을 인쇄하여 교포가정에 우편으로 띄웠으며 교포가정을 방문하면서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등 그 준비과정이 돈걱정도 되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서, 한인회가 당장 조직되어 떠맡았어야할 행사를 또 학생들이 해야되는구나 하고 한탄도 해보았다.

한인회 조직운동은 아직 얘기만하고 있을 단계였으며 언제 누가 나서서 조직을 하느냐 하는일이 문제였다. 나는 선거(?)공약아닌 주어진 임무를 생각해서 서두루 교수를 찾아가서 고민회를 빨리 조직하여 각종행사를 주관해주십사하는 학생들의 뜻을 전하였다. 서박사께서는 "우리(교포)가 학생들의 등에 업혀 살아서 체면이 말이 아닐세" 하시면서 고민회의 발족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후 며칠이 안되어 연락이 왔었는데 HUB (UW학생회관) 회의실은 하나 빌려놓으라는 분부였다. 드디어 "가칭" 시애틀 한인회 발기인회 제 1차 회의가 HUB 3층 소회의실에서 있었으며 그때 회칙을 기초하면서 "학생회장을 한인회 청년부장으로 하자"는 일부의견이 나왔으나 나는 이를 거절하고 "학생회는 한인회와 완전 분리하되 학생은 원하면 회비를 내고 한인회 회원도 될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채택, 지금까지 그 규정이 불문율로 내려오고 있다.

50년 전통의 Snohomish Bakery

* 생일 * 결혼 * 회갑 * 축하케익 * 무료배달

* 다과 * 도나트 * 단체주문배수

스노호밋쉬 (206) 568-2020
에버렛 (206) 258-1444

Snohomish, WA. 98290



1974년 1월 1일자로 한인회 일을 인계 받은 나는 하고 싶은 일도 많았지만 그보다 당장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첫째는 내적 충실이요 둘째는 외적 확장이다. 나누어진 교포 사회를 단합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한인회 임원들이 일을 하자니 장소와 장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한글 라자기, file cabinet 회의용 책상과 의자, Mail 을 신속히 할수 있는 Addressograph(이창희씨 기증), 레크기악 성조기 셋트(Stand와 Case 달린것은 구만희씨, 벽에 거는양곡 국기는 내가 기증했음) 등을 많은 비용을 장만하였고 한인회 사무실을 임대하여 거기서 모든일을 보게 되었다.

한인회보는 교포 사회의 신문으로서 "WASHINGTON STATE KOREAN NEWS"란 이름으로 1974년 1월 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발행했다. 시애틀 한인회가 워싱턴주에는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란 이름으로 등록했었지만 IRS 에는 1974년에 NON PROFIT ORGANIZATION 으로 등록을 완성하여 한인회에 기부한 본들은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한인회관 설치위원회의 기현중위원장이 모금활동을 적극 지원하였고 모금 파리를 권유 6월에는 제 1회 한국 의 밤을 SEATTLE CENTER 옆에 있는 SHRINE TEMPLE 에서 성공적으로 치루었다.

세주소독을 발간하는데는 시애틀 타코마 지역에 있는 여러개의 한인단체 고회등의 협조를 얻어서 약 700여 한인주소록 모아 1/4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를 발행하였다. 함버튼 주 미대사가 SPOKANE 세계 박람회에 참석차 시애틀에 들렀을 때 당시 한국 명예 영사였던 미국인 모씨의 무용력과 명예 영사관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여 시애틀에 있던 명예영사관이 이듬해에 폐지하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가 시애틀에 올때마다 한인회장과 K 목사를 동시 에 만나고 가는 것은 한인사회의 분열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지금 작고한 함대사에게 얘기를 드렸던 일이있었다. 또한 대외 활동에 있어서 EOC, DPAA, AAAC 등 여러 회의에 보다 많은 교포 대표를 파견하였고 한인회를 널리 알리고 한인교포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스포츠면에서는 제1회 락구 대회를 UW 에서 여는가하면 시애틀 타코마지역 교포 친선 축구 시합, 시애틀 맨큐버 친선퍼크닉 경 운동경기 가 또한 WOODLAND PARK 에서 있었다. 그 해에는 회칙개정을 두번이나 했다. 임원부수를 4부에서 9부로 늘였으며 기부금을 받는데 "이사회에서 승인해야"하는 조항을 "이사회 의 결의로 반력할 수 있다."로 고쳤다. 또 피선거권은 "회비 2년이 상 납부한 정회원으로"고치고 부회장 1명을 2명으로 하는등 다음 해부터 많은교포가 회원이 되고 많은 임원들이 일을 하게 처리한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였다.

다음회장 선거때에는 S 씨 단일후보가 되자 한인사회는 다시 뒤숭숭하기 시작했다. 11월 총회의가 수락장이 되었고 K 목사가 수많은 교포들을 동원하여 한인회를 떠맡으려했기 때문에 나는 정회를 선언하는 수 밖에 없었다. S 씨의 후보 사퇴와 한인회를 개명하기위한 회칙 개정등으로 수습채를 가구하여 12월 14일 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목사측의 불참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신호범씨가 새 회장에 당선되었다.

후임회장 선출과 그 임원진 구성이 늦어져서 그 해 아리랑의 밤 준비는 또내가 맡아야했다. OLYMPIC HOTEL SPANISH BALL ROOM을 미리 예약해 두었는데 목사가 500불을 선불하고 바로 영미인 GRAND BALL ROOM 을 빌려서 억식론주 한인회 만년파티를 한다고 선전을하니 호텔측에서는 어느것이 진짜 한인회인지 OLYMPIA 주청에 조회하는수선을 피였고 K 목사는 호텔측의 권유로 사용을 못하게되자 예약을 KOREAN GOSPEL MISSION으로 바꿔가며 끝까지 파티를 진행시켰다. 할수없이 총돌을 피하기 위해 SEADAC MOTOR INN 으로 옮겨 예정했던 날에 무사히 치루게 되었다.

1975년 1월 초 한인회 사무실에서 친구 임원이 모인가운데 인수 인계를 훌륭히 마치므로서 아리랑의 밤 행사를 세번치를 유익한 인물로 남게된 나는 한인회 일선 업무에서 일단 후퇴하게 되었다. 그동안에 수고한 본들을 생가나는데로 적어 보면 이선복 부회장이 손모 총무 김형진 재무 남선사 성의 관중세 편집과 그를 도운 신부식, 김길양, 박귀란, 이석복의원 서두수 이사장 천계상 부 이사장 이현기 이사 이창희 이사과 그의 부인 김간간 이사 회관설치위원회 기현중위원장 조영, 신호범 부위원장 송충래 재무 그리고 한만성 전회장 김덕환 부회장등 여러가지 지도와 편달을 해주었다.

한인회 박기인 제 2차 회의는 MERRY HOLIDAY 2층에 있는 작은방에서 있었는데 이선복씨의 제안으로 유익한 한국식당 고력정 주인 영준체씨를 방문, 돈 30불 인가를 얻어서 양주를 사다놓고 한인회 박기인을 자축하였다.

역사적인 시애틀 한인회 창립총회는 UW HUB 2층 소극장에서 있었고 회칙을과와 함께 5본을 선출, 그 본들이 각부 임원을 호선하였는데 이창희선생이 회장으로 추대되고 서갑사는 총무직을 자임하여 이선복씨와 함께 2명의 총무 부회장 1명 제무 1명과 함께 5인 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때까지 아리랑의 밤 준비와 돈거적을 하고 있던 나에게는 새로 탄생된 한인회야말로 큰 도움이 되었다. 우선 생가에 "혹시 적자라도 남는다?" 하던 걱정이 "가서 사적할 데라도 있다"는 생각만해도 마음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1967년 아리랑의 밤은 장소가 협소할 정도로 초만연을 이루었고 입장이 수임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도 약간의 흑자를 보아 파티후 새벽 3시에 수고한 임원들을 데리고 "데탕"에 가서 우동 하고 룻씨를 사먹으며 "학술회가 마지막으로 주최한 아리랑의 밤을 GOOD-BYE"했다. (당시 유학생들은 공부를 마친 뒤 귀국해야 했으며 아리랑의 밤을 다시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할 못했음)

시애틀 한인회는 창립 주모 멤버였던 5-6명의 지식인들이 만연직을 버려야 가면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몇년동안 친목을 위주로 모임을 계속해 왔었는데 새 이민법이 발표되면서 시애틀 지역과 타코마 지역에 이민온 교포수가 급증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한인 사회에 여러가지 정을 일으키게 되었다.

한인회 PICNIC 날에 K 목사의 교회에서도 PICNIC 을 같은날 정해 밤해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기 개인적인 주 한인회를 대표한다는 등 한인회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일을 궁극적으로 해왔는데 한인회측에서 도 이를 다루는데 연마히 처리를 못했다. 문호를 개방하고 서로 이민온 교포들을 포섭하여지는 않고 "목사라도" 정채를 의논만 함으로서 결국은 2 개의 한인회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실례로서 한인회비를 너무 비싸게 책정해 극소수가 납부했고 "2년이상 회비를 내고 한인회에 충성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주도록 하자니 정, 한인회에 찬조금 및 기부금을 내려면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정을 임원수를 늘여 임을 더 하도록 하진 않고 대신 이사회를 신설하여 기원직을 그루 해본 본들을 이사로 취임 (원로회와 같은 존재로 승격), 또 시애틀 한인회의 이름을 회칙개정이나 총회의 인준도 없이 "시애틀 억식론주 한인회"로 바꿔쓰기 시작했다는 거, 목사파에서 사람들을 데리고와 한인회를 빼앗을까 두려워 후표를 MAIL 로 하자니 의거가 토론되었던 일 까지 있었다.

우리 한인회(이름이 어느것인지 모르니) 정기 총회는 해마다 HUB 3층 소극장을 빌려서 했고 회장부부가 COFFEE POT 과 종이책 설라들이 든 봉지와 바스를 들고 다니면서 다과회를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하면서도 좋아서 자꾸 하겠다는 형편이었는데 학생회장이 혼자 하던것을 한인회장은 도와줄 부인이 있었으니 일이 쉬어져서 일까?

1973년 11월 총회에서는 어용한 사람이 회장에 당선되었으니 일년내내 어용한일이 자주 일어났다. 아리랑의 밤을 다시는 없게하던 사람이 회장에 선출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행사였으니 일단 책임을 맡은 이상 해야 할 일은 장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다. (학살때처럼 든거정 시간과 정은 덜해도 되었으니) 전직회장의 임기가 12월 31일까지이지만 전용에 따라 새로 선출된 회장이 아리랑의 밤을 치르게 되어 있었다. 파티 장소는 교포들이 사담에 물어져 살고 있음을 감안하여 BELL--EVUE 에 있는 HOLIDAY INN BALL ROOM 으로 결정, 시애틀 타코마 미 BELLEVUE 지역 교포와 학생 약 5-6백명이 참석하였으며 시애틀 최초의 한국인 단위의 반주로 한국 노래와 춤이 있었다. 파티는 성공적이었고 제정면에서도 흑자를 보아서 다행으로 생각했지만 그 보다는 중요한 것은 시애틀과 타코마 지역에 사는 교포들이 처음으로 같은 장소에서 하루 저녁을 같이 즐겼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비 온 뒤 굳어지는 땅

김동진 목사 (역성촌 한인루터교회)

6월 21일자 중앙일보의 기사를 읽고 한국교회에 먹구름이 떠도는구나 싶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6월 25일자 신문에서는 드디어 소나기가 쏟아지고야 말았다.

목사의 구속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목사의 할세 혐의로 시비가 오고 가고 있고 설악산 신흥사 살해사건이 어그제 같은데 이번에 엘리트 목사라 하여 내세웠던 바로 그 분이 구속되기까지 했더니 이 모두가 다 재물과 관계된 것이라 무언가 꼭 잡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것 같다.

그것도 그럴것은 금년이 한국선교 100주년인 해라, 목사의 구속이 다만 이번뿐 만은 아니나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세상이 시끄러웠던 까닭은 구속된 목사가 시무하던 교회의 비중이 한국 기독교를 대신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 교회라 더욱 세상이 발칵 뒤집혀진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진작 왔어야 했을 것이 이번에 되늦게 들어난 것이라 생각할때 오히려 다른분을 의하에서는 전화외복이 되었을런지 모른다. 왜냐하면, 74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국여행을 29회나 드나들었다는 이것부터가 실은 의화낭비고 보면 일생을 비행기 한번 못타보고 세상을 하직하는 분도 부지기수인데 아무리 제돈 쓰는일은 아니라 해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신병치료차 꼭 미국을 간다는것도 신앙관의 정립이 결핍되었음을 꼬집고 싶다. 왜냐하면 굳고한 내세관이 확립되었다면 자살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죽어서 더 좋은곳에 간다는 신념이 굳게 서 있다면야 죽음을 안아서 맞이할 줄 어찌랴 싶다. 더우기 한국의 의술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거면 다 아는병을 꼭 외국에가서 외장병을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도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 기회에 다같이 되새기고 싶은 말은 주한 미대사관당국으로부터 목사의 신임도가 오늘 처럼 땅에 떨어진 때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것은 미국에 거주하는 다수의 목사가 이나라 이민법을 역이용하여 목회자에게만 부여되는 특혜로 영주권을 얻고있는 사실은 "미국에 가기만하면 어떻게해서라도 안 돌아와야지"

하는 사전계획이 목사는 "비자만 얻어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기정사실이 이제는 아예 수학 공식처럼 되어있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결국 이것이 확고이되어 이제와서는 목사에게만은 비자를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또 이번 모 목사의 경우도 자기 재산정리를 떠나기전에 미리 부탁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그분도 역시 다른분들의 전철을 밟은 셈이된 것이다. 그러니 외화도 피는 이미 들어나지만 않았을 뿐 사람들의 눈을 피한지는 오랜세월이 흘렀다고 뉘이 좋을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눈이 문제일 것인데, 실은 하나님을 내세워가면서 외에서는 단전을 펴고 있다는 이것이 곧 목사의 외선이 아닐까? 게다가 미국내의 신학교가 왜그리 많은지 제2의 한국판이 지금 미국에서 재연되고 있으니 목사의 자질문제를 촉하면 들고 나오면서도 실지로 누가 목사의 자질을 저하시키는지 묻고 또 묻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늘 하나로 집약된다. 목사의 소명의식의 결핍이라 하겠는데 목사직을 그저 먹고 살아가는 일반 다른 직업인의 생활 수단으로 보는 직업관 때문에 부흥회 인도하고 받은 사례비를 부수입으로만 생각되어 자기 호주머니를 항상 차고 다녔음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했을 것을 오히려 더보이는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사실 역대 부흥사치고 진실한 몇분을 제외하고는 치부 안한분이 없을 정도이고 보니 이런 좋은 수입근원이 또 어디 있으랴 싶은 것이다.

또 다같이 생각해야 할 일은 외국에 드나드는 목사라야 실력있는 목자로 인정받으려드는 풍조에 편승되어 이제는 미국박사 학위 따오기 작전으로 미국을 드나드는 목사가 꽤 있는것을 보면 이것도 허영의 소치가 아닐런지 모르겠다. 필자가 중앙일보에 (82년 7월) "목사와 박사"라는 제호의 글에 크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 주었음도 이제사 이해하고도 남은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가닥 희망을 갖는것은 바로 지금 말씀을 일고있는 그 교회의 창립자의 목회자 상을 보라. 얼마든지 미국에 있는 아들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산재해있는 여러 그 교회의 출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한산성 어느 비탈길 자그마한 단칸방에서 우리 동족과 고향을 같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런 진실한 살아있는 밀거름이 부러져있는 한국 기독교는 그나마도 숨통이 트이고 있는것이라 하겠다. 정말 "한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다. 한국 기독교가 오늘이 있기 까지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님을 새삼 되새겨 지기를 바란다. 속담

에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그랴"는 말이 있드시 이번 에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해도 "땅은 오히려 비온 뒤 굳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런점에서 아무리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 해도 지금 계획된 한국 100주년 기념 사업은 계속 밀고 나가야 되리라 본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시 열심으로 심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더욱 매질하심을 이 기회에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류종합보험

Allstate®



- 생명보험
- 교육보험
- 가옥보험
- 건강보험
- 차 보험
- 사업보험
- 용자알선

언제나 신뢰하고
말길 수 있는

류창명종합보험

사무실 : 364-2450
자택 : 362-2510



157가 AURORA NORTH의 SEARS 빌딩 내.
민고 찾을수 있는 SEARS의 ALLSTATE를 찾아주세요

어린이 유괴 방지에 대한 부모의 책임

최근 미국에서는 매년 수 만명의 어린이들이 유괴를 당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매년 2만명내지 5만명에 달하는 유괴 건수가 미 해결된 채로 남은 실정이라고 하니 그것을 당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감안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인회 편집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한인 고민 부모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한 구체적인 유괴방지책을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여 실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명심할 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러한 유괴 방지책을 철저히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1. "안녕하세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넣어 줄 것
아무리 나이 많은 성인일 지라도 아이들에게 무턱대고 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르게 준다.
2. 자기집의 주소로 정확하게 알려주며 (Zip Code 포함) 전화번호를 안전히 알 수 있도록 할 것
(Area Code 를 반드시 알려준다.)
3. 공중 전화를 이용하여 일반전화나 장거리 전화를 할 수 있는 요령을 교육 시킨다.
4. 긴급전화 번호를 아르게 준다.
5.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일반 관공서 상점 혹은 경찰서에 뛰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교육 시킨다.
6. 낯선 사람이 쓰는 유혹 물질을 알아 둔다. 과자 선물, 돈 또는 잉여버린 케나고 양이를 찾는 데 도움을 청하는 행위 등이다.
7. 수상한 사람이 방향을 물을 때 자동차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자동차 안에서 아이를 끌어당겨 가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8. 만일 혼자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통해서 혼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알리지 않도록 할 것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에 전화하라고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혼자 자 집에 있을 때 의심스러운 사람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
고 교육시키고 경찰을 부르거나 이웃을 전화로 부르는 방법을 알려준다.
9. 밤에는 전등불이 있는 밝은 거리나 잘 아는 거리를 가도록 하며 친구들과 함께 건도록 할 것
혼자서 밤에다니는 것은 위험함
10. 만일 낯선 사람에게 붙잡혔을 경우에는 전력을 다해 빠져나가거나 그함을 지르거나 부모님을 치고 소란을 피워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할 것
11. 상점에서 부모들과 떨어져서 길을 잃었을 때에는 계산하는 점원에게 가서 알리고 도움을 청할 것
12. 주차장에는 절대로 혼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시킨다.
13. 만일 어떤사람이나 어떤일이 의심스럽고 불안할 때에는 곧 부모에게 알리게 할 것
14. 언제나 어디서 논다는 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나가는 것을 supervision 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요령들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교육시켜서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부모가 책임지고 계획성있게 지속성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의 두가지의 최근 모습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며 자녀의 지문과 치아 기록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으며 만약 유괴사건이 발생시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찾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홍인표 신경·정신과 전문의

901 BOREN AVE.
CABRINI TOWER #707
(206) 587-5747, 587-3748

꽃

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모든 애정사에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디모인스꽃집 824-5920, 밤 243-5160

자녀와 함께 읽는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자녀들로 하여금 책을 많이 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사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 하고 하여도 잘못된 말이 아닐 듯 하다.

오늘날 미국 공교육의 초등교육기관이 그 고과 과정의 거의 전체를 아동들의 독서 능력 향상과 많은 독서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아도 능히 짐작이 간다. 그러면서 이 독서문제가 계속 문제점이 되는 것은 독서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것과 이 사회에 독서의 습관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저해하는 요인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렇듯 학교의 노력에 병행하여 가정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몇가지 아동이 독서를 즐길 수 있게 하여 독서에 취미를 갖이게 하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여 지침이 되고자 한다. 특히 어린 자녀들로써 독서를 처음 시작하는 아동을 가진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몇가지를 제시해 본다.

1. 읽는 책이 자녀들의 독서력 수준에 맞는지 여부를 주먹구구려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페이지든지 맨 첫줄로 부터 읽게 합니다. 읽는중 틀리는 그 마다 손가락을 꼽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기 전에 다섯 손가락을 다 꼽아야 한다면 그 책은 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책은 자녀에게 너무 어려운 책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쉬운 책을 구해 읽어보십시오.
2.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히 연하지 않는다면 독서 시간을 짧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10분내지 15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3. 자녀가 책을 읽을 때에는 "듣는" 것에 중점을 두십시오. 자녀들이 읽는 동안 게임함으로서 중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만일 자녀들이 모르는 단어에 걸릴 경우에는 그 단어를 간단히 읽어줄 정도로 하고 곧 계속 읽게 하십시오.
4. 책을 읽는 중에 억지로 중단시켜 단어를 발음하게 하여 보거나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지 물어 보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많은 경우 이러한 것은 기껏 자녀들의 독서를 방해할 뿐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데에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독서란 내용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일 어떤 단어를 이해못하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을 다 읽은 다음에 흥미로운 방법으로 단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 자녀들이 읽은 후에는 좀더 고무적인 평을 하여 주십시오. 예를들면 "이제는 꽤 잘 읽는데" "훨씬 빨리 읽는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빨리 읽지 못한다고 평을 하거나 야단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 자녀들이 읽는 시간을 즐겁게하여 준다면 대단히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녀들이 읽는 시간을 즐겁게하여 주셔야 합니다. 남이 방해하지 않도록, 혹은 발을 밟게 해주고 의자는 편한것으로 마련해주는 방법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 존 겔 씨

1985년도 한인회장에

1985년도 한인회를 맡아 일년을 수고할 신임 회장으로 오 존 겔 씨가 당선되었다. 지난 10월 27일 단독 후보로 무후포 당선된 오 회장은 University of Oregon에서 공학을 마치고 일찍 시애틀에 왔으며 시애틀 사회와 그리고 한인회와는 인연이 두텁다.

오 회장은 한인회 이사장을 역임한 바도 있고 한인회를 위하여 공이 많다. 부회장은 노는 선우 씨와 박태호 씨 두 분이며 현재 그의 임원진 구성에 노력하고 있다. 부회장으로 여자가 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체로운 발전이라고 보겠다. 현재 부인 오 확실 씨와의 사이에 세자녀가 있으며 별부에 거주하고 있다.

오 회장은 좀더 서로가 신뢰할 수 있고 또 한인회와 한인사회에 공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풍조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싶다고 소신을 발표한 바 있다.

백영기 신임 영사 부임

임기 만료된 박부열 영사 후임으로 백영기 신임 영사가 부임하였다. 백영사는 고려대학교 정의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거쳐 영국 Dublin 대학에서 수학을 하고 미국 Columbia 대학에서 정치학을 수학한 바 있다.

그의 경력을 보면 Cambodia 대사관 근무를 거쳐 Hawaii Honolulu 영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본부 여권 과장을 거쳐 최근 Qwait 에서 참사관을 역임하고 금번 시애틀 영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시애틀 영사관에서는 주로 대교민 홍보 관계와 민사 관계의 업무를 맡게 되며 앞으로 시애틀 사회와는 더욱 가까이 일하게 되며 온후하며 외교관으로서 오랜 경력의 수완으로 이곳 교민 사회에의 기여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현재-출학에 2자녀가 있으며 단란하고 명랑한 가정의 모범이기도 하다.

※ 남영우씨는 개인의 사정으로 부회장직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수한 한국 학생

역시론 주 북쪽에 위치한 MT. VERNON 시 LABENTURE 중학교 (교장 MR. GUERNSEY (206) 424-7051)

84. 10. 5.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개교 13년만에 처음으로 동양계 학생이 선출되었는데 입후보한 다른 3명의 백인학생을 물리친 정본인은 다름 아닌 교포 서양우씨의 장남 서재식 (8학년) 군으로 L.A. 에 거주하다가 지난 1월에 현주소로 이주하여와 불과 6개월 여간의 기간동안에 모든 학생들에게 신임을 얻는 회장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었음에 교장을 비롯 교직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특히 군은 전과목 만점(4.0)이며, 모국어 (한국) 의 읽기, 쓰기는 물론 웅변에도 뛰어나고 또 학생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종훈 (206) 542-7885 서재식 (206) 336-5349 이흥연씨와 이영희씨의 아들 이종훈 (미국명 Albert Lee) 군이 쇼어라인 교육구의 Echo Lake 국민학교 학생회장으로 피선되었다.

무려 6명이나 되는 후보 가운데 16일 예비 선거에서 4명이 탈락되고 최고 득표자 2명이 결선에 올라가 23일 다시 선거한 끝에 이군이 당선되었다.

이군은 작년 King TV 뉴스 게임에서 2등에 입상할만 큼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고, 공부도 잘해 우수 학생들이 모이는 Gifted Program 반에 들어있다. 미국 태생으로 11세, 6학년이다. (한국일보에서 발췌)

한인 형제교회 대 부흥회

강사 : 이준만 목사 (서울 침윤교회 시무)

장소 : 시애틀 한인형제교회 1031 8th Ave Seattle Wa 98104

전화 : 367-0183 362-3917

평강장로교회 부흥사경회 안내

강사 : 이동원 목사 금번 평강 장로 교회에서는 말씀을 사모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자 하시는 분, 생활의 변화를 바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젊은 목자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사경회를 갖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시 : 1984년 12월 12일(수)-15일(토) 매일 저녁 7시

장소 : 평강 장로교회 1215 Thomas St Seattle Wa 98109

* I-5에서 Exit 166으로 빠진 후 Thomas St. 와 Pontius Ave. 가 만나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 연합 감리 교회

자체 성전 마련

김종원 목사 시무)

시애틀 시내 대학가에 자리잡고 있던 시애틀 한인 연합감리교회는 금번 새성전을 (백만불 상당) 을 마련하고 지난 9월 9일 주일부터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되었다. 예배 시간은 정오 12시부터이며 장소 6415 1st Ave. N.E. Seattle Wa 98115 (First Ave와 65가 사이)이다.

이번에 마련된 새성전에는 예배보는 좌석이 470석이며 목사실을 비롯하여 사무실, 회의실, 교회학교 교실 중. 고등부교실, 성가대실, 대. 소천교실 그리고 30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채플 (초예배실)이 있다. 본당 있는 파이프 울개를 비롯하여 각 교실마다 피아노 혹은 전자울개 등이 완비되어있다.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는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바이다.

LEE'S 타이어 및 자동차 종합 정비센터



تون업

머플러

타이어

브레이크

삭오브 서버

모두

완벽하게

고칩니다

트랜스 및송

프론트 엔드얼라인 먼트 (206) 362-4449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1984년 2/4 및 3/4 분기 재무 보고서

84년도 한인회비 내신분들 (84년 10월 22일 현재)

장성완 20.00	고봉식 20.00
CHARLES HUH 20.00	허성진 20.00
전영환 20.00	강병철 20.00
김상묵 20.00	엄명보 20.00
노정호 20.00	박건홍 20.00
LOUIS Y. HUR 20.00	나동천 20.00
JOHN Y. BAEK 20.00	김성일 10.00
김수정 20.00	심상현 20.00
이기락 20.00	김병섭 20.00
SUN TROPHY 20.00	

찬조금 기부자 명단

심상국 100.00	박태호 100.00
MRS. 이동섭 117.00	JAMES LEE 100.00
노명제 200.00	MUSCANTO 회사 2,000.00
신호범 200.00	오수당 50.00
김상구 50.00	

한인회보 광고료 내신 업체 및 개인

노명재산부인과 350.00	김병관부동산 210.00
UNIVERSITY 꽃집 35.00	장여행사 157.00
K.P. 번역원 144.00	RONALD 치과 140.00
O.K. 운전학교 120.00	류창영보험 180.00
조병규치과 140.00	이규영계리사 210.00
CENTURY 부동산 55.00	SUN TROPHY 40.00
SNOHOMISH BAKERY 105.00	JOHNY REPAIR SHOP 10.00
LEE'S TIRE & AUTO 210.00	PARK'S PAINTING 105.00
사천식당 119.00	

수입 내역	지출 내역
1. 1/4 분기 이월금 \$ 1,516.04	1. 사무실 임대료 \$ 1,232.40 (매월 250.40x6 7월-12월 84년)
2. 정기회비 입금 \$ 1,815.50	2. 전화사용료 \$ 244.15
3. 일반 찬조금 \$ 1,507.00	3. 강당및 교실 특별활동 임대료 \$ 205.00
4. 특별 찬조금 \$ 2,000.00 (MUSCANTO 회사)	4. 회보인쇄비 \$ 3,500.00
5. 한국 의 날 재정 이월금 \$ 2,274.12	5. 회보발송료및 우표 \$ 613.54
6. 회보 광고료 수입 \$ 2,643.33	6. CAMP CASEY 지원금 \$ 1,842.41
	7. 해양대학 한바다호 지원금 \$ 1,100.00
	8. 주소록교정인건비 \$ 604.00
	9. 사무실 임시고용원 인건비 \$ 720.00
	10. 각종 행사및 경기 지원 \$ 877.50
	11. 사무실 비품및 잡비 \$ 212.18
	12. BANK SERVICE CHARGE \$ 142.63
	13. 은행잔고 \$ 462.18
총 계 \$ 11,755.99	총 계 \$ 11,755.99

10월 22일 현재

하바 하바 비데오 및 사진관

비데오테이프 대여

각종 한국영화 · 연속극 · 시극 · 근예
및 다양한 프로

●출장 촬영 환영●

존경하는 교포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3년도에도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돌아오는 새해에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결혼 · 약혼 · 돌 · 회갑사진
영구권 · 여권 · 시민권사진
각종연회 및 파티사진예약
받습니다.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TEL: (206) 475-6226

주님은 초중 평강 하심을 빕니다. 금번 저희 교회에서 아래와 같이 본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성찬 음악회를 개최 하오니 여러 이웃에게 광고 하시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크리스마스 캐롤 (Christmas Carols)
2. "Exultate Jubilate" by W.A. Mozart
3. 헨델의 "메시아" "Messiah" by G.F. Handel

출연 : 소프라노 기미경 애도 신미녀
 테너 피아노 지영연 이스임주연
 피아노 차주 - 피아노 한인장 교회성가대
 Eastside Chamber Orchestra
 지휘 : 김필승

벅쿠버 시일 : 1984년 12월 2일(일) 오후 7:00
 시일 : 벅쿠버 순복음교회
 씨아틀 시일 : 1984년 12월 8일(토) 오후 7:00
 장 소 : 워싱턴 대학교 케인홀 (Univ. of Wash. Kane Hall)

담임목사 김상구 음악부장 김명순

O.K. 운전 학교

- ※ 교포가 운영하고 교포가 지도하는 운전학교
- ※ 운전 초보자에게 저렴한 교습비로 지도
- ※ 전문적인 지식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도
- ※ 최단 시일내에 운전면허증 취득
- ※ 필기 및 실기시험 100% 보장
- ※ 거리 및 지역에 제한없이 출장지도
- ※ 나이가 많은 분들도 쉽게 면허증 발급 가능

◎ 전화문의 및 상담 환영

운전학교 : (206) 775-1588

집 : (206) 771-3680



조병규 치과

시애틀

월, 화, 목, 토(9시~6시)

367-5570
 776-8512

페더럴웨이
 수, 금(10시~7시)

838-3180 시애틀
 927-4996 타코마

매년 6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는 어느 가정이나 자녀들의 하기 방학이 주어진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기가 닥쳐오면 부모들의 마음은 한 곳 증압감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녀들의 즐거움에 반비례 되어짐은 정녕 나 자신만은 아닐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나 자신의 어렸을적 시절 방학철에 검은 연기 뿜뿜대는 안행 기차를 타고 나룻배를 건너 보리밭, 밀밭 숲속을 헤치며 꼬불 꼬불한 좁은 논둑길, 밭둑길을 걸어가 벗짚으로 엮어진 외갓집의 지붕을 멀리 내다 보며 느꼈던 한가롭고 정스러운 추억도 일찍이 거니와 외갓집 앞 마당 밭에 심어 놓은 참외밭에서 참외를 따 먹으며 뒷산에서 울부짖는 때 미미 한가스러운 울음소리의 추억 또한 이제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었던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곤충 채집 한대시고 독사 뱀도 무릅쓰고 외갓집 뒷산을 미치도록 헤치며 잡아온 몇 가지의 곤충을 표본판에 정리하는 엉성하고 설 익었던 손길의 덕으로 곤충의 날개나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못내 섭섭한 마음으로 식씩거렸던 그 한 토막의 추억 또한 이제는 두 번 다시 가져볼 수 없는 역사의 장에 묻혀버리고 말지 않았는가. 그 추가루 똥뽕이 쳐 놓은 새우젓에 많치 않은 쌀을 넣어 만든 잘 익은 보리밥에 베를 부리며 방학에 찾아 온 외촌주에게 보리떡이라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주는 조글 조글한 외할머니의 손길의 정, 이런 모두가 영영 나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새삼 뼈아프게 느껴진다. 그구마 몇개 감자 몇개 참외 몇개의 보따리를 건네주며 "이것을 가면서 차에서 매고플 헨니 까먹으라"며 다른 한 손으로 건네주는 몇알의 삶은 달걀을 어린 손주 손에 건네주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외할머니의 초췌한 모습 또한 그 얼마나 깊고 리없는 정의 마음인가.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모습을 다 어떻게 글로 표현하겠는가. 언젠가 부터 풍월같이 들어온 "시간은 역사를 만든다."라는 말을 기억하게 된다. 확실히 그의 진의를 통감하게 될적이 있다. 성년이 되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아네"라는 대명사를 사용케 되었고 태어난 후손이 하나 둘 셋, "이 높은 내 딸이고 그리고 내 아들이고...."라는 대명사를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사용해 지면서 점차히 아버지라는 의젓한 입장을 고수해야만 되는 철저한 한 가

정의 가장이라는 직위를 갖게 되었고.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진전속에서 점차히 생체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아성 아역을 고수하려고 하는 독선적이고 자기주의적 감정이라는 이 우수광스러운 역사적 변천을 빼놓을 수가 없다. 아내에게는 "밥통같이 거뭇 하는 짓이 왜 맨날 그 모양이야.... 거 아무게 부인좀봐.. 좀 배워... " (이 글을 쓰며 내 자신이 웃는다.) 아이들에게는 "... 너희들 사람들이 될래 안될래... " 또는 "지금 아버지 바쁘니까 내일 알으켜 줄께... " 또는 "내일 이야기해!..." 뭐 이런 외에도 등등 얼마나 시껌잡은 대화가 거치장스름없이 자연스럽게 나와야만 되는 역사적 진전 또한 예외될 수 없다. T.V.를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애들아 너희들은 매일 T.V.보는것 밖에 모르니? 좀 책 좀 들여다 봐!..." 등등. 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자기주의적 감정이 아닌가. 돌이켜 보면 네 자신의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 나를 상대로 한 어른들이 주신 정의 바로 위의 것들이었다면 전자에 말한 외갓집 풍경이 내 머리속에 그토록 가슴아프게 새겨져 있을까... 소위 문명적 사회의 덕으로 경제적 불평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하루 하루 생활하는 덕분으로 아이들에게 피아노도 사 준다, 자전거도 사 준다, 자동차도 사 준다 등등으로 내 자신에게 과연 얼마나 만족함을 느꼈는가. 아이들이 치는 피아노 옆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과 과 함심되어 경청해준 적이 과연 몇번이고 호화스런 자전거를 식구마다 사다 놓고는 전 가족 단란하게 자전거 학이킹을 떠나 본것이 손가락으로 꼽어 몇개나 되나. 긴 여름 방학 동안 집안에다 가두어 놓고는 "너희들 아보지 엄마 없을때는 밖에 나가서는 안돼." "T.V.는 하루 한시간 이상 보아서는 안돼" 매일주일이 멀다하고 근처 도서관에 가서 보따리로 들어오는 책을 닦쳐오는 만남일에 맞추어 책장만 넘겨야 되는 여름방학 동안의 아이들에게 과연 먼 훗날 그들 동심의 추억은 무엇인가. 허다못해 "너희들 코카 콜라는 많이 마시면 못써" 그런데 위의 말외에도 이 글중에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너희들 제발 한국말좀 사용 해라"

애걸같은 아버지의 호령이 아닌 호령. 그러면 어쩔수 없이 떠엄 떠엄 몇마디 쉬운 말을 사용해야며 몇분 동안 지껄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어린 아이들의 모습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발견했어야만 하나.

그들이 이룩하는 먼 훗날 그들이 역사의 장에 아버지의 어머니의 모습이 과연 어느 각면에서 비추어질 것이며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온 생가의 추억이 어떻게 화폭에 그려질까. 내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독선아닌 자선이, 애정이, 이해력이, 포용력이 그리고 자애가 얼마나 과연 진지하게 주었는가.

내가 가장 피로하고 약했을때 아이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진지한 태도를 배우자. 그러므로 나의 육신의 피로는 가중될런지 모르지만 나의 심신의 피로는 감히 덜 것이다.

학교는 사람을 못 만든다. (School Never Makes a Man.) 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일면의 진리를 갈파한 명언이다. 그래서 선철(先哲)은 심전경작(心田耕作)을 강조했다. 마음의 밭을 갈라고 했다. 는 밭에 김을 안매고 내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독충이 들끓는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가는것을 심경이라고 한다. 농경도 중요하지만 심경은 더욱 중요하다.

상처는 오래두면 깊는다. 굶기전에 치유하는 태도를 취하라 아이들의 인격을 최대한은 결국 나의 인격을 성장시킴과 같다. 그들에게 나의 어렸을 적 추억보다 몇 배배 강한 추억을 갖도록 해야한다. 이것은 결국 나만의 의무는 결코 아니다.

신호범교수 서양 문화의 중심지 연구 여행 계획

SHORELINE COMMUNITY COLLEGE의 세계 문화사 교수 신호범 박사는 85년 6월 20일 부터 7월 19일까지 서양문화의 중심지를 학생들과 같이 수학여행할 예정이다.

여행목적은 서양문화의 발달지, 성격, 영향과 특징을 연구하며 희랍 ATHENS 부터 시작하여 고대 희랍 문명지를 관광하고 기선(선편)으로 ITALY 에 도착하여 SORRENTO, CAPRI, PHOMPEI 등지를 경유, ROMA에서 ROMA문화를 연구한 후 FLORENCE 와 VENICE를 여행하여 이태리 RENAISSANCE 문화를 감상하고 다음에는 VIENNA, HAPSBURG 왕국시대 문화를 돌아본다. 이곳은 특히 천주교 연구에 중요하며 동구 로마의 정치 관계 중심지로서 역사적및 사회적으로 중요한것을 관광할 것이 많다. SALSBURG를 거쳐서 독일 MUNICH 에 도착 고중시대(中世) 독일문화를 관광할 예정이며 다음에는 PARIS에 도착하여 불란서 왕국의 역사 정치 또는 불란서 문화 중심지를 모두 관광하게 된다. PARIS에서는 역사적 미술적 명소를 모두 관광할 예정이며 그 후 LONDON 에 가서 역시 영국의 역사, 정치, 문화등에 대하여 시찰하게 되며 이곳에서 영국 민주주의 제도를 관찰하면서 종합적인 서양문화의 비교적 감상을 한후 귀국하게 된다. 여행기간은 한달 동안인데 대학의 학점이 필요한 분에게는 SHORELINE COMMUNITY COLLEGE에서 SUMMER SCHOOL에 등록을 하면 10-15학점 까지 받을 수 있다. 출발전 약 2주간 서양문화사 기초와중요한 사항을 학생들과 같이 강의하며 관광 방법등도 토론할 예정이다.

한달 동안의 여행 총비용은 여비 숙박비등을 합해서 2,698,000이며 만약 전액을 1985년 1월 15일까지 선불하면 이 금액에서 올리지 않고 비용을 보증한다. 이 여행비용은 학생들에게 DISCOUNT 를 해주기 때문에 타운데 보다 훨씬 싸게 든다.

이 여행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신호범 교수에게 직접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될수 있다.

전화 연락처 546-4736 (학교)
778-1972 (집)

로명재 산부인과 美 산부인과 학회 인정 전문의

- 임신·분만
- 피임상담
- 복강경 피임수술
- 각종 부인병수술
- 일반 부인병진료
- 불임조사 및 불임증 치료
- 질 성형수술
- Sexual counseling

Auburn office

833-2580

Federal way office

927-8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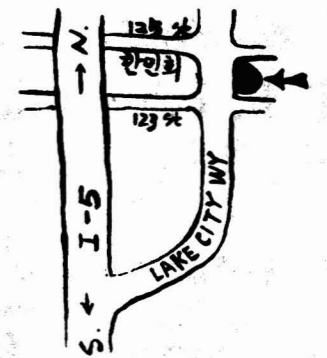
SUN TROPHY CO.

그동안 찾아주신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 사랑하시고 찾아 주십시오.

취급품목 : 트로피, 상패, 기.
케너트, 실크인쇄
범퍼스티크 (전도용)

주소 : 12336 Lake City Way NE
Seattle, WA 98125

전화 : 367-4432 (가게) 363-9547 (집)
Tacoma: 588-9222



K. P. 번역원

K.P. TRANSLATION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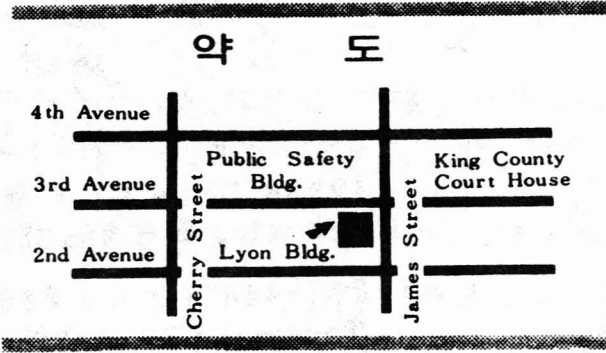
언어의 장애로 이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든지 상담해 드리고 해결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사건조사, 법률처리 알선
- *유능한 변호사 알선
- *법정·이민국·정부기관·병원 통역
- *계약서·보고서·각종 신청서류·책자 고급번역 및 작성
- *ESCROW 서비스
- *이민문제 상담.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하여 K.P. 번역원은 씨애틀 다운타운 중심가에 새 사무실을 설치하고 풀타임 프로페셔널 봉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K. P. Translation Services

K. P. 번역원
 Suite 303 Lyon Building
 607 Third Avenue
 Seattle, Washington 98104
 (206) 682-3480



* 3rd Ave.와 James St. 교차로 서북코너에 있는 Lyon Bldg. (씨애틀 시 법정 맞은편 건물) #303호실

센츄리부동산

(206) 223-8949
 400 BOREN AVE. SEATTLE, WA.

Sam Yun : 878-3647 변종혜 : 775-6976
 이양남 : 363-0443 추잔김 : 883-4484
 김일영 : 364-9596 조인 : 364-5966

16 U 아파트 + Extra Lot for 12 Unit 36만 6만다운
 단층임 Tacoma 부대 앞 월수입 3,800-
 Cafe : 8만제고 35,000 D/N6일영업 시간 7-4시
 월매상 7,500이상 부부운영최적 집세 350불
 5년 고정됨
 Breakfast & Lunch: 주5일 130,000+ 제고 4만 D/N
 일매상약800불 주인 Retire 함(시간:6:30-5
 Deli & Mart: 12만+제고 4만 D/N 월매상 3만 집세 650
 11년 Lease
 Grocery : 75,000+제고 3만D/N 월매상 16,500-
 33% Mark Up 현주인 8년
 Grocery : 20만+ 제고 10만 D/N월매상 45,000-
 Sandiwich & Deli : 17만+제고 7만 D/N
 월매상 35,000이상 42% Mark Up
 Grocery + 집+건물 몽땅 : 19만+제고 7만 D/N
 월매상 2만 (SNOHOMISH)
 세락초 : (1) 105,000+제고 55,000 D/N
 월매상 8,000+1,000(\$9,000) Tacoma
 (2) 115,000+제고 55,000 D/N 월매상 8,000-
 현주인 5년
 Pizza : 135,000+제고 55,000 D/N
 월매상 15,000-17,000 월손익 4,500-
 Motel (24U): 625,000- 16만 D/N 년수입 12만
 Super Location 더지을 땅이 있음
 기타 주택및 다수 Listing 이 있습니다.

린우드 TOPPr인쇄소

- 청타시실관비, 각종인쇄물취급
 - 명함, 주보, 주소록, 각종간행물 제작
 - 청타란? (한글타자는 모양이없고 사진식자는
 값이 비싸고, 이런문제를 청타가 해결해드립니다.)
- 5907 196TH S.W. 린우드 ☎ 775-7667

박화관

각종 표구 액자 전문
 서예 수예 동양화 평풍제작판매
 각종고급 서양화 특별엄가판매

* 초상화 진화문의환영

간판

한글 한문 영문 아크릴 프렌카드
 각종 특수체 및 조각간판제작
 사무실 **762-5410**
 집 **242-6801**
 월~토 오전 9시~오후 5시

1515 Roxbery S. W. Seattle WA 98106
 (중앙식품 근처)

김병관 부동산

- 사업체 및 주택
알선해 드립니다.
- 투자안내 및 상담환영
- 성심껏봉사 하겠습니다.

집 ☎ (206) 745-1367
 사무실 (206) 365-4700

안과

- 일리노이 주립대학 학사, 대학원
- 테네시 남부대학 박사 학위
- 아리조나 투바시 병원
- 예일대학 계절 학술원

안과 학 박사 윤 병 덕
 눈진료 전문의

- BOEING VISION PLAN 지정 안과 의사
 (AETNA, KING COUNTY MEDICAL BLUE SHIELD)
- BLUE CROSS 각종 직장 보험 환영
- WESTERN VISION SERVICE 지정 안과 의사
- MEDICAL 정부 보조 COUPON 환영

* 진료과목

- ◎ 검안 ◎ 인공안구 ◎ 콘택츠 안경
- ◎ 난시교정 소프트렌즈 (30일용)
- ◎ 백내장 녹내장 당뇨병 망막 검사

시애틀 린우드
 LYNNWOOD PROFESSIONAL CENTER
 5017-196th St. S.W., Suite 106 #106
 Lynnwood, WA 98036
 ☎ 778-0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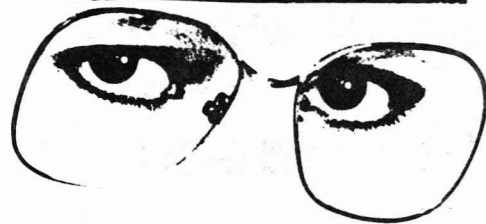
집
 778-2657

웨드럴 웨이 터코마
 LAKEWOOD EYE CLINIC
 10009 Bridgeport Ways.w.
 Tacoma, WA 98499
 ☎ 582-0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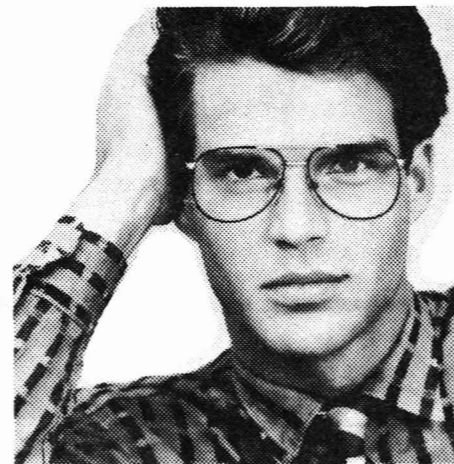
부속

시애틀 ● 타코마

March II
 EYEWEAR, INC.
 171 Ames Court, Plainview, New York 11803
 1-800-645-1300



안경원



● 고급세글래스 및 각종 안경테 ● 안경제조시설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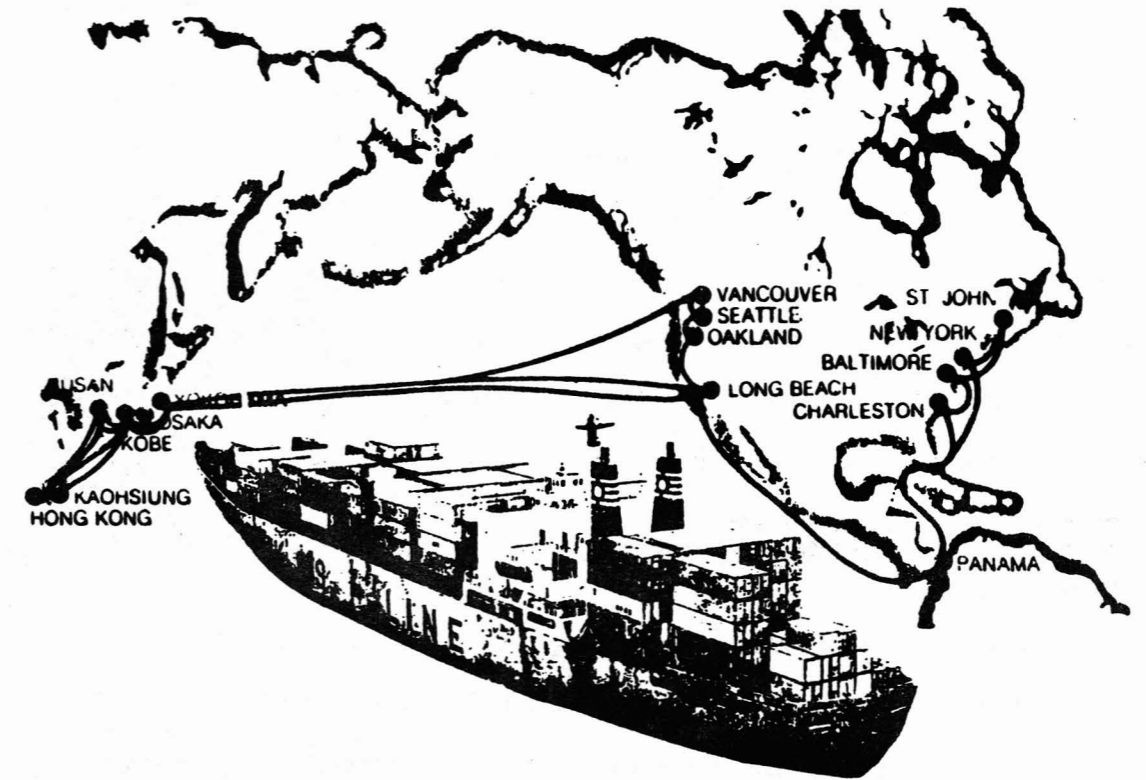
한국 해운의 기수

K.S. LINE

- 수출입 화물
- 귀국 이삿짐
- 창고업
- 통관업무

미국과 동남아를 6일 간격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귀택의 이삿짐은 부산·서울 편리한 곳에서 14일만에 통관, 찾으실수 있습니다.



(206) 625-1960

2121 Fourth Avenue Suite 2250 Seattle WA 98121



大韓船洲(株)
 KOREA SHIPPING CORPORATION

롱비치 지점 (213) 437-0431
 뉴욕 지점 (212) 422-5950
 샌프란시스코지점 (415) 777-2600
 시카고 지점 (312) 693-7500
 휴스턴 지점 (713) 227-3261

밴쿠버사무소 (604) 669-2439
 포틀랜드사무소 (503) 228-9818
 볼티모어지점 (301) 727-3550
 찰스턴지점 (704) 365-4582

People of many nations cam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find new homes. Korean immigrants are relatively new to this land of opportunity. Like the immigrants from other nations who had come before us, my family came with the hope to find a better life.

We found immigrant life very difficult. There were many things we had to learn to adapt to American way of living. With determination, my parents worked long and tiring hours. For my father, who worked nightshift at a shipyard, the night hours seemed long, and everything he touched was cold, rigid steel. My mother awoke early in cold, dark morning before sunrise to go to work. When I got up in the morning to go to school, I realized that mother had gone to work and saw father sleeping in bed. We somehow got used to the schedule. Mails came, and my sister sat with her dictionary and a pencil and looked up words, trying to understand. She became our bookkeeper and translator. We did not attempt to visit new places for the fear of not being able to communicate and the fear of being discriminated. The places I remember going to were stores to buy food or household goods and homes of other Korean immigrants. Many times we felt mute and frustrated, because we could not express our thoughts. We were held hostage to the new way of life.

However, my parents pushed us through the difficulties with love. They said, "Without effort, no rewarding moment will come." They inspired me with stories of courage and faith they had held in their hearts when they were young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Our living condition improved. We owned a house and a car. Yet, our lives were ever more busy. Days passed with hustle and bustle of American city life. Daily works seemed to control our lives. In the midst of hardship, my parents held high aspirations. They wanted to achieve a quality of life that is rewarding. They believed that education was the key to our success

and always encouraged my sister and me to study. In the modern world, knowledge is power, and education is the instrument. I learned much, but I have much more to learn and experience. I need to endeavor to fulfill my dream, because I cannot lose sight of my purp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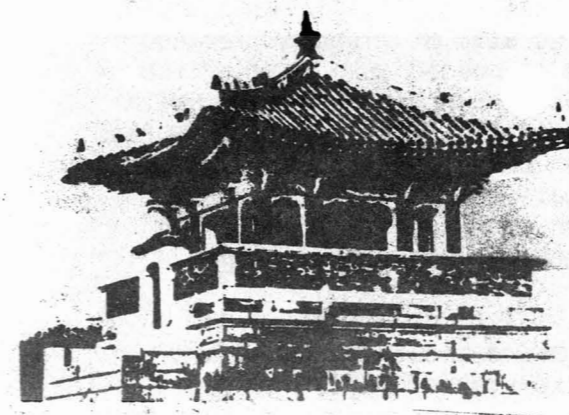
손 기 남 공인회계사

이번 10월 부터 중심가에 새로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 중소기업 장부정리
- 개인, 사업 인컴택스
- 세무, 퇴직연금, 은행용자상담
- 모든 문제를 절대 기밀 보장하며 상담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 (206) 340-1622
 1111 3rd Ave, # 700
 Seattle, WA 98101

3rd Ave 와 Spring and Seneca 중간



남 대 문 식 품

12월 1일 부터

년중무휴

오전 9시 ~ 오후 8시

3900-128th Ave Suite D SE Bellevue, WA 98006

(206) 643-4244

SOMETHING NEW IS HAPPENING

IN

WASHINGTON'S KOREAN AMERICAN COMMUNITY

BY DAE SHIK YU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several events took place in Washington State's Korean community, which defy the traditional Korean American image often characterized by individual survivalism and self-centeredness.

On June 8, 1984 a Korean American manufacturer of specialized glass products was granted Washington State government's approval to issue industrial revenue bonds in the amount of \$3 million. The Path Enterprises, Inc., located in Lakewood-Tacoma Industrial Park, hires 140 full-time employees, mostly Korean, and its business has been rapidly growing for the past five years. The industrial revenue bond is a form of tax-deductible federal loan with a low annual interest rate of 8.5 percent, and the Path's president Mr. Hubert (Hun Joo) Park is planning to use the \$3 million industrial bonds as the seed money for the expansion of the Path's production lines, which will create more jobs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Washington State. Among the Asian American businesses who applied for the industrial revenue bonds, the Path Enterprises is the only one selected by the Washington State Economic Development Board, thanks to the Path's strong track record of the past five years. Herb Graham of Optical Coating Laboratory, Inc., one of the Path's customers, congratulated Herbert Park and his CRT crew in a mailgram which in part reads: you have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developed a safety panel manufacturing line whose quantity and quality matches or exceeds that of any bending facility in the world. We at OCLI continue to be impressed by the enthusiasm and total dedication of your management staff and especially the workers on your rework and new panel line."

The man who is leading the Path Enterprises to this impressive progress is also contributing to the economic activities of Washington's Korean community. As president of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in Washington State, Mr. Hubert Park almost singlehandedly revived the operation of the Chamber, which had for some time remained inactive, by providing funds for the salary of a full-time employee and space and equipment for the Chamber's office. Located at midpoint between Seattle and Tacoma,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is housed in a cozy office at 584 Industry Drive in the South Center compound, serving the community with business consultations and various information services. The role of the Korean Chamber of Commerce, says Hubert Park, is to define our common interests and needs and design a plan to achieve those common goals systematically. He is envisioning a Korean American banking system, which would aid the 800 Korean American small businesses in Washington State by making it easier for them to obtain the acutely needed investment mone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Washington State heard about another heart-warming news last August, when a Korean American exporter of forest products in Bellevue, made a \$10,000 donation toward scholarship and community services funds of the Seattle Korean Association. Mr. Bong Il Ho, president of the Muscanto, Inc., made the contribution. Through the general manager Kevin Horn who presented the \$10,000 check on behalf of Muscanto to the Korean Association's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Do Sung Uhm, Muscanto's president Bong Il Ho suggested that \$8,000 be awarded to outstanding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who are in need of financial assistance so they can devote themselves freely to their studies, and that the remaining \$2,000 be used for funding the Korean Association's community services projects. Mr. Ho pledged an annual contribution toward the Korean American student scholarship fund in the future, contingent upon Muscanto's business growth.

The Seattle Korean Association announced upon receipt of the Muscanto scholarship funds on August 11, 1984, that the Association's Board of Directors will serve as the "Muscanto Korean American Student Scholarship" selection committee, and that some time before September every year, four outstanding Korean American students in need of financial assistance will each be awarded a \$2,000 Muscanto scholarship.

In ten years' time forty bright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will have been awarded the Muscanto scholarship, and when one imagines what those forty outstanding Korean Americans can do in various fields of their specialization, one cannot commend Mr. Ho's contributions highly enough.

The next story of a memorable event does not involve a large amount of cash donations but is no less meaningful than the two events just described. It is a story of dedicated Korean American women pooling their talent and spare time to reach out to those who need a helping hand.

Last September the Korean Community Counseling Center celebrated its first anniversary. A non-profit organization run by volunteering Korean American women with a membership of 150, the members of the Counseling Center put in a total of 1,400 hours helping out 254 cases of people afflicted with language, cultur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One hundred and ten men and women, young and old, who had difficulty communicating with the doctors and nurses at the various hospitals and clinics in the Seattle area, benefited from the Center's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s. Thirty four individuals agonized by domestic problems ranging from child abuse to divorce to drug and alcohol addictions received individual counseling that relieved or solved the problems before they turned into life-threatening crises. They helped out Korean Americans involved in 28 court cases while responding to literally hundreds of telephone inquiries with relevant information and referrals to specialists in medical and legal fields.

Addressing a crowd of about 100 supporters and friends who gathered to celebrate the Korean Community Counseling Center's first anniversary, the guest speaker Mr. Young Shik Shim, author of Don't Cry, Mom, said that the occasion symbolizes t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standing at the threshold of a new era. Ever since the 1903-1905 Korean emigration of 7,000 laborers to sugar plantations in Hawaii, individual survivalism has characterized the Korean American identity. Although survival is the primary condition of life, there is a certain narrowness in individual survivalism which fails break out of the shell of self-centered egoism.

While the Woodland Park United Methodist Church (an American church) has offered the Korean Community Counseling Center free use of office space to house the Center, making it possible for the Center to help others in need, Mr. Shim observed, Korean churches have yet to reach out to the many Korean Americans who are struggling below poverty line. Although he has heard of quite a few

successful medical doctors, there are no free medical clinics in the Seattle area. Hinting at his own intentions, Mr. Shim said that he anticipates in three years there will be a free legal clinic, serving the Korean Americans in Washington who cannot afford the high cost of legal assistance.

While listening to Mr. Shim's speech beautifully delivered in superb English, my thoughts turned to the three occasions where Korean Americans in Washington had to protest against bias and misconceptions manifested in the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nd the news media. The University of Washington's decision in 1977 to discontinue a Korean literature position vacated by the retiring Professor Doo Soo Suh led to a series of protest demonstrations by Korean students and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October 1978, the Seattle Times article "Koreans' dispute turning violent here," full of racist overtones and painting a nasty picture of both Korea and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ere, led to three rallies in front of the Times building staged by Korean Americans from the Seattle and Tacoma areas. The Tacoma News Tribune carried a series of five feature stories on Korean Americans in Pierce County in March 1983, which angered many Korean American community members, protesting TNT's yellow journalism preying upon Tacoma's Korean Americans.

As with other Asians in the United States, Korean Americans, too, have had their experience in American and their home country inaccurately depicted, misconstrued, and often distorted. Misconceptions, ethnic stereotypes, and racial bias persist among most Americans chiefly because there is an undeniable void of information about the history and contributions made by Korean Americans. And this void of information has resulted in knowledge gaps in the American educational system, in business and industry, government, and in print and electronic media, all of which aid in the perpetuation of myths, stereotypes and half-truths about Korean Americans.

The stories of the Path Enterprises and Hubert Park, of the Muscanto and Bong Il Ho, and of the Korean Community Counseling Center and the dedicated Korean American women (there are many more stories like these), must be told a thousand times over until their contributions are clearly etched in the consciousness of mainstream Washingtonians. This, of course, is not to suggest that we portray an image of the model minority whose members are all millionaires and college professors--an image with serious drawbacks and falsity.

한인회보

표지의 『한인회보』 제자 :

한인사회를 위하여 헌신, 사랑, 겸양,
술선수범으로 귀감이 되었던 고 이창희
초대 한인회장의 생존시 취호

한인회보 1984년 제 7 호
발행인 : 오 계 희
편집인 : 박 승 휘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2611-125th St. NE
Seattle, WA 98125
P.O. BOX 24992
Seattle, WA 98134
☎ (206) 362-4500

정확하고 친절한 여행안내

장여행사

C AND C TRAVEL SERVICE

523-7057

* 24 시간 *

10212 5th Ave. NE #220 SEATTLE, WA 98125

- 국내외 항공판매 (일부도 가능)
-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 각종 번역 및 통역
- 항공 보험
- 각종 여행수속
- 호텔 렌트 카 예약
- 이민 상담 안내
- 공중업무

NORTH GATE WAY

노스게이트
사립센터

NE 103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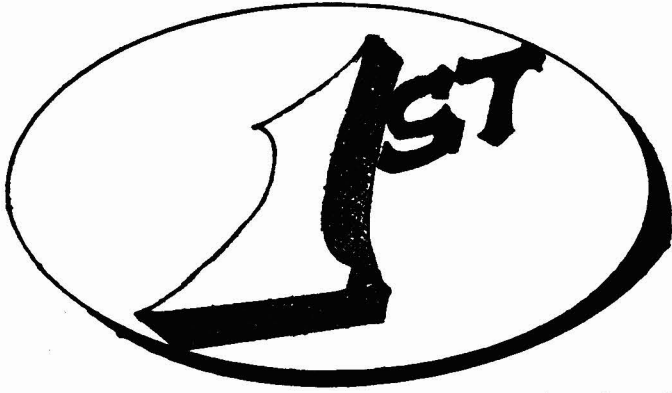
5th Ave

화장이전



- * 결혼식
- * 장례식
- * 각종 축하 화환
- * 그린 프렌즈
- * 전화(525-7422)만 주시면 언제든지
 메달해 드립니다.

University Village FLORIST



AUTO REPAIR CENTER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그동안 여러분의 성원으로 상기의 장소에 『제일 자동차 정비공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정직과 기술로서 성실히 봉사코져 하오니 특히 이번 개업기념 저렴한 가격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PEN-
6 days a week
Mon~Sat
8:00 AM~8:00 PM

(B)762-5844

(H)241-7463

● General Overhaul

○ Tune-ups

○ Brakes

○ Transmissions

*United Technolog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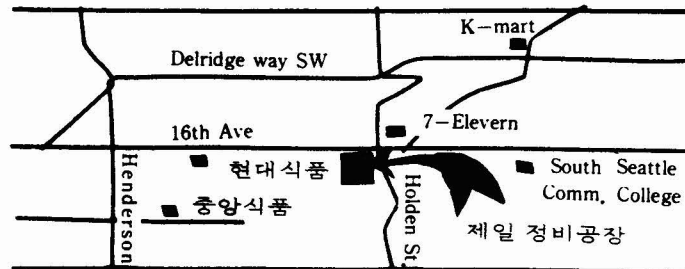
● Emission Testing

○ Carburetors

○ Oil & Lube

○ All Major & Minor Repairs

*NASE Mechanic



립우드 TOPRIN 인쇄소

제일 자동차 정비공장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o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제일 자동차 정비공장
16th Ave & Henderson St
Seattle, WA 98124